

광주 문흥중 '춘계전국중고배구대회' 준우승

결승전서 경북 금호중에 0대2로 무릎...2연속 준우승 값진 성과 평균 187cm에 맹훈련으로 조직력 탄탄...내달 CBS배 우승 도전

광주 문흥중학교 배구부가 '2022 춘계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문흥중은 지난 16일 육천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16세 이하부 결승전에서 금호중(경북 영천)에 세트스코어 0-2(21-25, 16-25)로 패했다.

이로써 문흥중은 지난 7월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 이어 2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문흥중의 선전은 백인호 교장과 박병희 감독, 최민국 코치, 선수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친 성과다.

이들은 '끝' 같은 여름방학을 뒤로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맹훈련으로 매일 기량을 갈고닦았다.

여기에 오후 7시40분부터 9시30분까지 이어지는 야간훈련까지 소화하며 조직력을 한층 배가시켰다.

그 결과 문흥중은 평균 신장 187cm로 뛰어난 신체조건과 함께 기술적인 능력이 향상,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또 한태웅(188cm·3년)과 김한별(178cm·3년)을 극대화시킨 더블 세트 체제를 구축, 변칙적인 경

기 운영으로 상대를 쉽게 허물어트렸다. 실제로 문흥중은 조별예선부터 상대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막강했다.

첫 경기에서 만난 인하사대부중을 세트스코어 2-0(25-20 28-26)으로 물리친 뒤 금호중을 세트스코어 2-0(25-22 25-18)으로 눌렀다. 이후 본오중을 세트스코어 2-0(25-14 25-19)으로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문흥중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8강에서 만난 경북사대부중을 세트스코어 2-0(25-16 25-11)으로 승리했고, 4강전에서는 제천중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2-1(23-25 25-21 15-10) 역전승을 거뒀다.

상승세를 탄 문흥중은 우승 도전에 나섰다. 체력 저하에 따른 리시브 불안 등으로 2위에 머물렀다.

결과는 아쉽지만 서재현(3년)의 레프트상을 포함해 김유찬(3년) 센터상, 박현승(3년)이 공격상을 수상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이번 문흥중의 성과는 광주 남자배구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 남자배구는 문정초-문흥중-전자공고-조선대-비오신코리야로 이어지는 초등부터 실업팀



광주 문흥중학교 배구부가 지난 16일 열린 2022 춘계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문흥중 제공)

까지 연계육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흥중의 상승세를 이끈 3학년 7명이 모두 전자공고 진학을 앞두고 있어, 광주배구는 한층 탄

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희 광주 문흥중 감독은 "학교의 높은 관심과 지원, 선수단의 하나 된 의지 등이 무척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오는 9월 단양군에서 열리는 '제33회 CBS배 전국 중고배구대회'에서는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황인선호, 佛 꺼야 8강 간다...18일 프랑스와 한판 승부



황인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18일 오전 11시 코스타리카 산호세 국립경기장에서 프랑스와 2022 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C조 최종(3차)전을 치른다. 사진은 한국 U-20 여자축구 대표팀. (대한축구협회 제공)

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조 3위 한국, 승리해야 본선 진출

황인선호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8강 진출이 걸린 일전에 나선다.

황인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U-20 축구 대표팀은 18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 국립경기장에서 프랑스와 2022 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C조 최종(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앞서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1차전에서 강호로 꼽히는 캐나다를 2-0으로 제압한 뒤 '난적' 나이지리아와 2차전에서 0-1로 석패했다.

승점 3을 쌓은 우리나라는 2연승을 달린 나이지리아(승점 6), 1승 1패를 기록 중인 프랑스(승점 3)에 이어 3위다.

한국은 프랑스와 골 득실에서 +1로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선 2-3으로 밀렸다. 각 조 상위 2개 팀이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3차전에서는 2위 이상을 넘보는 프랑스와 역전을 노리는 한국의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이 펼쳐진다.

황인선호가 8강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물론 프랑스가 쉬운 상대는 아니다. 2014년 캐나다 대회부터 2018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까지 U-20 여자 월드컵 3회 연속 4강에 올랐고, 2016년 파푸아뉴기니 대회에선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프랑스 U-20 대표팀과 역대 한 차례 만나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2014년 캐나다 월드컵 8

강에서 0-0으로 비겼으나 승부차기에서 3-4로 패해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중요한 길목에서 프랑스를 만나는 한국은 8년 전의 아쉬움을 씻어내겠다는 각오다. 피지컬이 좋은 캐나다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했듯,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친다면 프랑스도 '넘을 수 없는 산'은 아니다.

성인 대표팀의 '지메시' 지소연을 연상시킨다고 해 '천메시'라는 별명이 붙은 천가람(울산과화대)을 비롯해 고다영(대덕대), 고유나(울산과화대), 배예민(포항여전고) 등이 한국의 8강행 티켓을 점조준한다.

천가람은 대한축구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나이지리아전에선 겁을 먹었던 것 같다.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은 좋지만, 풀 필요는 없다"며 "프랑스전이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해 지치지 않는 대한민국,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골키퍼 김경희(WFC)도 "프랑스전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다. 다 같이 실점하지 않고 좋은 경기를 해 이기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새 팀 찾기 험난...황의조 EPL 입성할까

울버햄프턴·노팅엄 관심 속 이적료·임대 조건 걸림돌

소문은 무성하지만,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0·보르도)의 거취는 안갯속이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17일(한국시간) "황의조의 이적 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결말에는 다가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는 황의조를 영입한 뒤 구단주가 같은 울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를 보내려 한다. 하지만 황의조는 울림피아코스 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달 노팅엄 이적설이 제기됐으나, 조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황의조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2부)로 강등된 소속팀 지롱댕 보르도를 떠날 생각이다.

그는 이미 지난 시즌이 끝난 6월부터 "최대한 빨리 새 팀으로 이동해 적응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며 이적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새 팀을 찾지 못하고, 2022-2023시즌 유럽 축구는 이미 막을 올렸다.

황의조는 울버를 내내 타 구단으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프랑스 리그1의 낭트, 마르세유, 몽펠리에, 스트라스부르, 독일 분데스리가 살게, 미국프로축구(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등 다양한 팀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유럽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최근 리그1 브레스트가 영입을 제안했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도 손을 뻗었다.

황희찬(26)이 뛰는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 승격팀인 노팅엄 포레스트까지 러브콜을 보낸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황의조의 마음은 EPL로 기울어 있다. 레퀴프는 "황의조의 우선순위는 프리미어리그 진출"이라고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이적 조건이다. 울버햄프턴은 처음 황의조의 이적료로 200만 유로(약 27억원)를 제시했고, 팀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 진출할 경우 100만 유로(약 13억원)를 옵션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르도는 이 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보르도 입장에서는 팀의 핵심 공격수를 내주는 대가로 더 높은 이적료를 원한다.

유럽 축구 이적 정보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황의조의 추정 이적료는 700만 유로(약 93억원)다.

보르도가 울버햄프턴과 이적료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사이 노팅엄이 영입전에 가세했는데, 이번에는 '임대'라는 걸림돌을 만났다.

다만 노팅엄과 보르도의 협상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황의조는 하루빨리 새 팀을 찾아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보르도에서 시즌을 치르는 그는 발랑시엔과 2022-2023시즌 리그2 1라운드에서 18분을 소화하고 니오르와 3라운드에서 2분여를 뛰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김하성 내야안타 2개 맹활약...2주 만에 타율 0.250 회복

3타수 2안타 1볼넷...팀은 3-4로 패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주전 유격수 김하성(27)이 2주 만에 타율 0.250을 회복했다.

김하성은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망 경기에서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으로 활약했다.

전날 마이애미전 무안타로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멈췄던 김하성은 멀티 히트 활약으로 시즌 타율을 0.250(364타수 91안타)으로 끌어 올렸다.

김하성이 타율 0.250을 넘긴 건 지난 3월 콜로라도 로키스와 더블헤더 1차전(0.252) 이후 2주 만이다.

2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리난 김하성은 4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0-3으로 끌려가던 7회에는 선두타자로 등장해 3루수와 유격수 사이 깊숙한 타구로 1루를 밟아 두 타석 연속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유릭스 프로파르의 안타, 후안 소토의 볼넷으로 3루까지 진루한 김하성은 매니 마차도의 싹쓸이 3타점 2루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유격수 김하성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 7회에 매니 마차도의 안타로 홈으로 들어온 뒤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바둑중 서준우, '프로기사' 입단 성공

한국바둑중학교 3학년 서준우(15)가 입단 관문을 통과하고 수훈(守擧)이 됐다.

지난 12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5회 지역영재 입단대회 최종국에서 서준우가 세종지역 박대현(15)에게 238수 끝에 백 불계승하며 입단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바둑중학교는 제 13-15회에 걸치는 3연속 지역영재 입단대회에서 입단자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는 16세 미만 지역영재 구상 49명이 출전, 예선과 본선의 열전 끝에 1명

의 입단자를 배출한다.

서준우 초단은 광양 출생으로 일곱 살 때 바둑을 처음 배워, 2019년 맑은샘배 고학년부 우승과 소년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는 2022 조야제약 루기바둑리그 순천만국가정원 팀 선수로 활약 중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최정상 아마추어 선수와 신예 프로기사들과 대국 경험은 이번 입단대회에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국바둑중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인 민상연 5단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준우의 입단에 대

한 바람은 아주 절실해 보였고, 그에 따른 남다른 노력과 집중력이 대단했다"면서 "준우의 바둑은 모양이 잘 정돈된 미학적 바둑을 잘 둔다"고 칭송했다.

서 초단의 입단으로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는 모두 408명(남자 330·여자 78)이 됐다. /임재만기자

